EASTERN ECONOMIC FORUM

월간 뉴스 다이제스트
극동 경제 발전

2016년 12월

핵심 테마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6년 11월 25일 <인테르팍스>

2017년 극동 경제 포럼 개최일 확정

극동경제포럼 설립을 위한 첫 번째 미팅에서 의장인 유리 트루트네프는 도시 인프라 구축 관련하여, 블라디보스토크의 숙박시설 및 극동연방대학교의 캠퍼스의 포럼 준비 대한 많은 지시를 내렸다. 비즈니스 프로그램 관련하여서는 따로 지시를 내렸다.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의 스케줄에 따르면, 제 3회 경제 포럼은 2017년 9월 7일경 개최될 것이다.

극동 경제 포럼 위원회의 설립 관련 보좌의 책임이 있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고문 A.코캬고바에 따르면, «이 포럼은 세계의 정치에 있어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했으며, 2년동안의 극동 경제 포럼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우선적 개발에 중점을 둔 주요한 국제적 커뮤니케이션과 아-태평양지역의 경제적 통합의 플랫폼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786157&sec=1671

극동 지역 정부 정책

2016년 11월 20일, minvostokrazvitia.ru

싱가포르, 극동 지역 내 대러협력 강화 의지

APEC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중국의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중국간의 협력에 관한 이슈 논의 중, 중국과 일본의 정상들과 경제적 협력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대통령은 무역 경제 관계의 개선을 중점에 두었다.

현재까지, 중국인 투자자들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개발 및 지역의 우선적 개발에 관련된 2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3조 달러가량 투자하고 있다. 합작투자는 국제 운송 관련 개발 프로젝트인 «Primorye-1» 및 «Primorye-2»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에서, 아베총리는 양국간의 협력 활성화와 지난 제 2회 극동 경제포럼의 중요성에 관하여 강조했다.

양측은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한 앞으로의 러-일 협력 실행 계획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는 에너지, 인프라, 농경, 의약, 도시발전 등의 18개의 큰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규모는 16조 루블이다.

https://forumvostok.ru/na-sammite-ates-vladimir-putin-obsudil-voprosy-ekonomicheskogo-sotrudnichestva-s-liderami-kitaya-i-yaponii/

2016년 11월 24일, REGNUM

«극동 지역» 관련 정부 타겟 프로그램

2017년부터 정부 및 연방의 타겟 프로젝트는 극동지역의 개발에 초점을 둘 예정이라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특색 있는 특정 이벤트 및 달성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핵심 프로젝트 형성은 2017년 3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메드베데프 총리가 밝혔다.

https://regnum.ru/news/economy/2209166.html

2016년 11월 25일, minvostokrazvitia.ru

러시아–싱가폴 극동지역 협력 투자 협력 확대

러시아 싱가폴 정부간 제 7차 고위 회담이 열렸다. 회의에서는 극동 투자 및 수출 진흥 기관과 싱가폴 코퍼레이션 엔터프라이즈 에이전시 간 극동지역의 싱가폴 투자자들을 위한 공동 프레젠테이션 진행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하였다. <창이 국제 공항>, <바조븨 엘리멘트> 그리고 러시아 직접투자 펀드는 싱가폴 회사인수 및 블라디보스토크의 크네비치 공항 구매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했다.

http://minvr.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849

2016년 11월 7일, <라시스카야 가제타>

러시아와 중국, 극동 발전 위원회 설립 예정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 중국 총리 리커창은 새로운 국제 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북동지역의 협력에 주력할 것입니다.

양측은 무역, 경제, 상호 투자, 문화 및 인적 교류 및 교육 관련의 실질적인 협력에 관하여 논의 하였니다.

https://rg.ru/2016/11/07/reg-szfo/rossiia-i-kitaj-sozdadut-komissiiu-po-razvitiiu-dalnego-vostoka.html

극동 지역의 경제

2016년 11월 8일, <티하오키안스카야 라시야>

호주 회사, 추코트카에 석탄 시추 시작

TigersRealmCoalLimited사는 <Fedushkina field>에 매장된 석탄을 시추하기 시작한다. 계약에 따르면, 연간 천만~1천 2백만톤의 생산을 예상한다. 이 석탄들은 중국, 대한민국 및 추코트카 등의 아태평양 지역들로 운송된다. 2017년에는 TigersRealmCoalLimited 사는 20억톤의 석탄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50억톤까지 확대 생산을 계획 중이다. http://to-ros.info/?p=42659

2016년 11월 11일, <타스>

일본, 프리모리예로의 관광 루트 확대 예정

일본 관광청 대표는 프리모리예 방문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이 지역으로의 관광루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광부 대표와의 회의에서 정보 교환에 관련한 동의서에 협약을 맺었다. 일본측은 모든 현재의 관광객에게 정보와 관광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기적으로 알리게 된다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여행객들의 이목을 더 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통합 휴양 지역인 «프리모리예»는 해변, 마린스키 극장 등 복합적인 유흥을 선사할 수 있는 지역이며, 아시아 여행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루트를 더 연구해 볼 계획이라고 오오테 여행사의 오키노 미즈로 대표는 밝혔다. http://tass.ru/turizm-v-rossii/3775528

극동 개발의 새로운 메커니즘: 성공 사례

2016년 11월 15일, <베스티>

<극동 헥타르> 1만 이상 지원

<극동 헥타르>에 선출되는 이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극동지역 인적자원 개발 에이전시>를 위해 특별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은 상품의 생산 및 유통적 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을 집결하는 센터 및 소수의 기술자들을 위한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약 3만 5천명 가까이 되는 지원자가 사하공화국(야쿠티아)에서 지원을 하였으며, 두번째로 많은 지원자를 배출한 지역은 약 2만 3천명인 프리모레이며, 사할린

은 2천명 이상의 지원자로 3위를 했다. 가장 인기 있는 토기 개발 종류는 주택용이다. 2위는 농경용이다. 현재까지, 지원자들은 극동지역 거주자로 한정되었지만, 2017년 2월 1일부터 «극동 지역 헥타르»를 획득하디 위해서는 모든 러시아인이 지원가능하게 되어, 지원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알렉산드르 갈루쉬카가 언급했다.

http://www.vestifinance.ru/articles/77623

2016년 11월 28일, minvostokrazvitia.ru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100번째 후보 투자 프로젝트 참여

«유라시아 다이아몬 센터» 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프로젝트에 참여를 위한 동의서에 서명했다. 이는 3천 2백만 루블 이상의 사설 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16군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는 회사의 다이아몬드 사업의 수출입에 중점을 두고 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현재, 128조 루블 투자 규모의 100개의 회사가 있으며, 20,175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minvr.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852

2016년 11월 16일, <리아 노보스티>

캄차트카에서 첫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자유항의 투자 기반 마련 시작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 민속촌과 숙박시설 건설 준비가 착수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약 9억 루블이라고 밝혔다. 현재 캄차트카 지역에서는 20조 이상의 투자예산 및 16건의 잠재적인 자유항 후보자들을 검토하고 있다. 2016년 6월에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의 영토가 자유항 지위를 획득하였다. https://ria.ru/economy/20161116/1481458962.html